

녹색도시상 제정·격년 개최 합의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의 시작 환경지표 만들어 교토의정서 대체

‘2011 도시환경협약(UEA) 광주정상회의(이하 광주정상회의)’를 통해 광주가 세계 속의 환경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광주시의 유엔환경계획 등이 공동 개발중인 도시환경평가지표와 도시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계) 초안에 대해 참가도시들이 높은 호응을 보여 이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또 2005년 샌프란시스코 이후 7년 만에 열린 이번 광주정상회의에서는 UEA 정상회의의 격년제 순회 개최, UEA 회원도시연합 설립 및 사무국 광주 설치, 저탄소녹색도시상 시상 등의 내용을 담은 광주 이니셔티브와 광주선언문도 발표될 전망이다.

가 2012년으로 그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광주시와 UNEP가 공동개발하고 있는 도시환경평가지표가 이를 대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축하메시지를 통해 “광주협약 체결 이후 도시문제 현안을 해결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회의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빛의 도시 광주의 진면목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도 “광주를 넘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변화의 속도를 높이고 크기를 키울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후대에 이어줄 개발의 길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과 ▲에너지 효율성 및 기후변화 ▲쓰레기 감축 ▲스마트 녹색 교통 ▲물 수요관리 및 수질관리 ▲자연생태 등 주제별 분과회의가 이어졌다. 광주시는 12일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에 참석 한 해외도시 9곳과 환경정책 교류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13일 폐회식에서는 광주 이니셔티브·저탄소녹색도시상 시상, 차기 개최도시·광주선언문 발표, 의장 추대, UEA 협약서 채택 등이 예정돼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1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1 도시환경협약(UEA) 광주정상회의' 개최식에서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레스터브라운 지구정책연구소 소장, 올리앙 캐스트로 미국 샌안토니오 시장 등 참석자들이 강운태 광주시시장의 개회사를 경청하고 있다. 이번 광주정상회의는 13일 막을 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위기의 광주·전남 정치권

어쩌다 이 지경 됐나

견제풍토 후진 못 키우고 민주 일당지배 체질 약화

지역 유력 국회의원을 10년 이상 보좌해온 A보좌관은 지난 7월 내년 총선에 본인의 출마 의사를 의원에게 밝혔다가 비참함을 느꼈다. 의원으로부터 되레 “분수를 모른다”는 핀잔을 들은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비단 A보좌관의 일만은 아니다. 오랫동안 모셔왔던 주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수많은 정치 유망주들이 나이 50이 넘어서도록 ‘비서’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다. ‘불일’과 ‘현실 안주’ 등으로 표현되는 광주·전남 정치권의 위기는 이 같은 후진 양성 실패에서 시작됐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또 “호남은 무조건 민주당이다”라는 기득권 사고와 ‘묻지마 지지’가 현재 위기를 자초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DJ가 대선에서 승리한 지 15년이 흐른 지금에도 이 같은 주장이 통용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이에 대해 지역정치권에서는 물러날 때를 알지 못한 채 노욕을 부리는가 하면 후진까지도 경쟁자로 생각해 제거하는 풍토를 원인으로 꼽는다. 친노(親盧: 친 노무현)와 영남의 대선주자급 정치인인 이광재 전 강원지사과 안희정 충남지사, 김태호 의원,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모두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모두 주군의 힘을 받아 유력 정치인으로 성장한 것이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에는 이 같은 정치인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 있어서 정치권 진입은 용이했으나 민주당에 위기가 찾아오면서 동반 추락했다.

<‘민주당 몰인’의 결과(?)=광주·전남의 정치적 위기는 모든 것을 민주당에 걸었기 때문에 왔다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다. 즉 민주당의 위기가 호남 정치의 위기로 직결했다는 것이다.

◇치세대 주자 키우지 못해=현재 거론되는 광주·전남 출신 차기 또는 차차기 대선주자가 영남 출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에 대해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그늘이 너무 컸다’는 주장이 한동안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

정치지형도 후진 양성 실패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11일 “영남의 경우 보수적인 한나라당에 흡수되지 않은 개혁적 인사들이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시민운동 등을 하면서 변화하는 시대조류에 부응할 수 있었지만, 광주·전남에서는 개혁적 인사들이 민주당이라는 터전

광주의 한 친노 인사는 “민주당은 과거에는 민주와 개혁의 보루였지만 시대가 변한 지금, 적어도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기득권이 됐다”며 “정치 지평선은 물론 시도 민 모두가 민주당에만 의지한 것이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역정치인과 시·도민의 성향은 수도권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성장해야 할 정치지평들을 지역 정치인 수준으로 끌어내린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변화하는 시민의 욕구를 철저히 분석하며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야할 민주당이 기득권의 그늘에서 현실에 안주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F1D-1 지구촌 6억명 눈 영암으로

코리아 그랑프리 내일 개막...스피드 제왕들 속속 입국

지구촌 6억 TV중계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세계 최고의 모터스포츠 이벤트인 국제자동차경주대회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무안공항이 모처럼 북적거리고 있다. 전 세계를 통틀어 24명뿐인 ‘1000만달러 사나이’ F1 드라이버들이 영암으로 집결하고, ‘고속 질주’를 지켜보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오면서다. <관련기사 3·18면>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오는 14일 두 차례 연습 주행을 시작으로 영암

군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KIC)에서 막을 올린다. 본격적인 F1대회 예선은 15일 오후 2시부터 1시간동안 펼쳐져 결선 레이스의 출발 순서를 정하고, 16일 오후 3시 대망의 결선이 펼쳐진다.

부산지방항공청 무안공항지사에 따르면 12일 오후 5시30분 F1 드라이버인 루이스 해밀턴(26·영국·맥라렌)이 헬기편으로 무안공항을 찾는데 이어 오후 6시35분에도 제바스티안 페텔(24·독일·레드불)이 자가용

전세기를 이용, 영암을 찾았다. 무안 공항측은 13일에도 두차례 전세기로 10여명의 드라이버가 무안공항으로 입국한다고 덧붙였다.

무안공항측은 미하엘 슈마허 등 10여명은 자신이 소유한 자가용 비행기로 무안공항에 입국할 것으로 예상하고 특별교통대책반을 운영하는 한편, 신속한 입출국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러시를 이루고 있다. 그동안 8편에 불과했던 항공기

운항편수가 대회가 끝나는 20일까지 일본·몽골, 오사카, 홍콩, 상해 등 30편으로 부쩍 늘었다.

F1 대회기간 중 전남을 찾는 관광객들이 대부분으로 공항을 통해 전남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만 1300명이 넘는다. 이미 3000여명의 국제자동차 연맹(FIA) 관계자들과 F1팀 관계자들이 현장에 들어와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목포 평화광장에 있는 일부 업소는 늦은 저녁까지 외국인들로 들어차 유럽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킬 정도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도가니 국정조사 하자” 의원 80명 요구서 제출

국회가 장애인 성폭행 사건이 벌어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관련기사 4-6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12일 여야 국회의원 80명의 서명을 받은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이후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 소홀 규명을 위한 국조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사가 있었으나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제보한 교사는 해임을 당하는 등 부당한 결과를 낳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관리감독 관청은 지속적이며 엄격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다가 영화 ‘도가니’가

방영되면서 10월 3일야 비로소 학교법인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어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조치를 강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1년도 제22년차
조대부고 총동창회
친선 체육대회**

- 일시: 2011. 10. 16(일) 09:30
- 장소: 모교운동장
- 전화: 062-224-146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정 병 용

**제22회 광주동신고등학교 총동창회
한마음 체육대회**

- 일시: 2011. 10. 16(일) 10:00
- 장소: 모교운동장
- 주최: 광주동신고등학교 총동창회
- 주관: 광주동신고등학교 17회
- 연락처: 010-7573-0000

추진위원장 박상열
17회동창회장 정재근

Yonhap International Press Photo Awards
in support of the 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Share the Moment, Share the Future

유엔 새천년개발목표를 위한
유엔-연합뉴스 국제보도사진전

2011. 10.10(월) ~ 10.2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콘코스홀(로비)

유엔 새천년개발목표를 위한 연합국제보도사진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연합국제보도사진전은 유엔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유엔의 빈곤퇴치 및 기후변화 대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www.yippa.net
유엔 새천년개발목표(UN MDGs) 소개
국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초등교육의 원천 보급, 성 평등 촉진과 여성 신장, 유아 사망률 감축, 임산부 건강 개선, 에이즈 말라리아 기타 질병의 퇴치, 환경의 지속 가능성 보장,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발전.

- 오시는 길: 김대중컨벤션센터역(마복역)하차 - 5번출구에서 도보로 3분거리
- 문의: TEL. 02-568-3208 FAX. 02-3452-7292 E-mail. yippa@yna.co.kr

주최: 유엔연합뉴스
후원: 유엔, 대한민국,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The Gold Prize/ Bethany Jane CLARKE
Bethany Clarke Photography,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